<h1>나 혼자만 레벨업-85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pdd77a090ba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5화</p>  
<p>E급 헌터가 A급 던전에 들어가겠다니!</p>  
<p>아주 난리가 났다.</p>  
<p>"상급 마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거길 들어가려고?"</p>  
<p>"성 씨, 대체 어쩌려고 그래?"</p>  
<p>"아직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그렇게 돈 몇 푼에 목숨을 걸면 못 써!"</p>  
<p>채굴팀 팀원들이 우르르 진우에게 몰려왔다.</p>  
<p>배 팀장은 손기훈에게 설명했다.</p>  
<p>"아이고, 저 친구가 어제 일을 처음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들었나 봅니다."</p>  
<p>"저분 랭크가 어떻게 됩니까?"</p>  
<p>"그게..."</p>  
<p>진우 쪽을 살짝 돌아본 배 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E등급입니다. 아무리 그래도 등급이 너무 낮은데 다른 헌터를 데려가시죠. 저 친구를 데려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."</p>  
<p>손기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.</p>  
<p>'저 사람이 E등급이라고...?'</p>  
<p>아까 눈이 마주쳤던 남자.</p>  
<p>확실히 그에게서 남다르다고 할 만한 마력이 감지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.</p>  
<p>하지만 뭐라고 할까?</p>  
<p>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... 날카롭고 잘 정돈된 기운 같은 것이 느껴졌다.</p>  
<p>'E급은 아닌 거 같은데.'</p>  
<p>암만 봐도 최하급 헌터로는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물론 배 팀장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보기에는 그랬다.</p>  
<p>'그리고 짐꾼 등급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?'</p>  
<p>짐꾼은 짐만 잘 들면 된다.</p>  
<p>공격대 말미에 위치한 짐꾼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그 레이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.</p>  
<p>그렇게 되면 A급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데, 짐꾼 등급이 C급이건 E급이건 무슨 소용일까?</p>  
<p>어차피 죽는 건 다 똑같다.</p>  
<p>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워졌다.</p>  
<p>아직 레이드는 시작도 못했는데 너무 오래 지체했다.</p>  
<p>손기훈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.</p>  
<p>"아뇨, 저 사람으로 할게요."</p>  
<p>\*\*\*</p>  
<p>"무겁지는 않습니까?"</p>  
<p>손기훈이 물었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괜찮습니다."</p>  
<p>등에 멘 짐에는 공격대가 쓸 여분의 옷이나 무기, 방어구 등이 잔뜩 들어 있었다.</p>  
<p>부피는 상당했지만 정말로 무겁지는 않았다.</p>  
<p>근력 스탯의 힘이었다.</p>  
<p>'무리하는 거 같이 보이지는 않네.'</p>  
<p>진우의 안색을 살피던 손기훈이 게이트 쪽으로 돌아섰다.</p>  
<p>진우도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눈앞에는 어제 봤던 것만큼이나 거대한 게이트가 떠 있었다.</p>  
<p>'아니, 이쪽이 좀 더 큰가?'</p>  
<p>그래도 마력량은 오늘 게이트가 어제보다 더 적다고 한다.</p>  
<p>공략 난이도는 게이트의 크기가 아니라 마력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2군이 이번 게이트를 맡게 되었으리라.</p>  
<p>'진짜... 흘러나오는 마력은 어제에 비해서 턱없이 적네.'</p>  
<p>게이트 앞에 서니 확실히 알 수 있었다.</p>  
<p>협회의 측정 결과가 틀리진 않은 듯했다.</p>  
<p>그런데 왜일까?</p>  
<p>전에 레드 게이트 앞에 섰을 때처럼 묘하게 불길한 느낌이 스쳐 갔다.</p>  
<p>'...기우겠지?'</p>  
<p>손기훈이 지시를 내렸다.</p>  
<p>"들어가죠."</p>  
<p>게이트 앞에서 잠시 대기했던 공격대가 지시에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헌터들이 하나둘 던전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'...'</p>  
<p>게이트를 올려다보던 진우도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.</p>  
<p>[던전에 입장하였습니다.]</p>  
<p>던전 안은 평범했다.</p>  
<p>묘한 느낌에 긴장하고 있던 진우는 어제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통로를 보고 한숨을 놓았다.</p>  
<p>'휴.'</p>  
<p>다행히 다른 세계로 이동되지도 않았다.</p>  
<p>하기야 레드 게이트에 발을 들여도 클리어가 가능한 수준의 멤버들이다.</p>  
<p>A급 11명, B급 6명.</p>  
<p>헌터스가 아니라 다른 길드였다면 절대 2군으로 분류되지 않을 구성원들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었다.</p>  
<p>'공격대 일원으로 낀 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.'</p>  
<p>어제와 오늘.</p>  
<p>굳이 따지자면 놀러 온 것에 가까웠다.</p>  
<p>오늘은 좀 더 구경거리가 늘었을 뿐.</p>  
<p>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.</p>  
<p>"너무 긴장하지 마세요."</p>  
<p>옆에서 치유계열의 여성 헌터가 말을 걸어왔다.</p>  
<p>나이는 20대 후반쯤?</p>  
<p>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긴장감을 좀 풀어 주고 싶은 모양이었다.</p>  
<p>"기훈 오빠, 아니 리더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다 쟁쟁한 헌터분들이시거든요. 저만 빼고."</p>  
<p>싱긋 웃는 힐러.</p>  
<p>처음부터 공포심 같은 건 없었지만, 여자 헌터의 태평한 얼굴을 보고 있는 동안 바람 새는 풍선처럼 긴장감이 빠져나갔다.</p>  
<p>진우는 실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아, 예."</p>  
<p>성과에 만족했는지 힐러는 뿌듯한 얼굴이 되었다.</p>  
<p>마침 입구 근처에 마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선두가 출발 사인을 내렸다.</p>  
<p>"이동."</p>  
<p>진우와 힐러도 공격대의 보조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주변을 경계하며 이동하는 바람에 속도는 느렸다.</p>  
<p>"무거우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"</p>  
<p>진우의 짐을 힐끔거리던 힐러가 물어 왔다.</p>  
<p>진우는 말없이 왼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건넸다.</p>  
<p>"꺅!"</p>  
<p>휘청거리는 힐러의 손에서 잽싸게 물통을 낚아챘다.</p>  
<p>급정지한 공격대 전원이 힐러를 응시했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"</p>  
<p>힐러는 이쪽저쪽으로 연거푸 고개를 숙여야 했다.</p>  
<p>당연히 그 뒤부터 도와준다는 소리는 일절 들리지 않았다.</p>  
<p>따가운 눈빛은 덤.</p>  
<p>진우는 큭큭 웃음을 삼키며 모른 척 걸었다.</p>  
<p>던전에서 오랜만에 웃어 보는 것 같았다.</p>  
<p>'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금방 위험해지니까.'</p>  
<p>요즘 들어서 특히.</p>  
<p>악마성 상층의 난이도는 지금 돌이켜 봐도 몸서리쳐졌다.</p>  
<p>그런데 오늘은 다르다.</p>  
<p>가끔은 이렇게 제삼자로서 레이드에 끼는 것도 괜찮은 느낌이었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진우의 걸음이 멈췄다.</p>  
<p>진우보다 한발 늦게 공격대 헌터들도 이변을 알아차렸다.</p>  
<p>"옵니다!"</p>  
<p>손기훈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공격대 헌터들 전부가 전투태세를 갖추었다.</p>  
<p>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.</p>  
<p>진우는 감탄했다.</p>  
<p>'이게 상급 헌터들의 레이드...'</p>  
<p>그동안 봐 왔던 어중이떠중이 공격대들과는 급이 달랐다.</p>  
<p>어수룩해 보이던 여힐러의 손에서도 벌써 맑고 투명한 빛이 넘실거리고 있었다.</p>  
<p>'내가 나설 차례는 없겠네.'</p>  
<p>진우는 안심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.</p>  
<p>어쨌든 마수가 도착했다.</p>  
<p>짐승? 개?</p>  
<p>손기훈의 눈이 가늘어졌다.</p>  
<p>다다다다다다.</p>  
<p>하이에나와 흡사한 생김새의 마수들이 떼 지어 몰려왔다.</p>  
<p>크기가 중형차 한 대만 한 놈들이었다.</p>  
<p>손기훈이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던전 자칼?'</p>  
<p>가까워지니 확실히 알 수 있었다.</p>  
<p>던전 자칼이었다.</p>  
<p>방패를 앞세우고 있던 손기훈은 도발 스킬도 쓰지 않고 방어 자세를 풀었다.</p>  
<p>그리고 자신의 목을 노리고 뛰어오른 던전 자칼을 방패로 내려찍었다.</p>  
<p>"캐갱!"</p>  
<p>"뭐야?"</p>  
<p>"던전 자칼이야?"</p>  
<p>잔뜩 긴장하고 있던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움츠리고 있던 몸을 폈다.</p>  
<p>곧 자칼들의 단말마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.</p>  
<p>"키잉!"</p>  
<p>"캥!"</p>  
<p>"캐갱!"</p>  
<p>자칼들은 금방 정리됐다.</p>  
<p>십여 마리가 넘던 자칼들이 순식간에 사체로 변했다.</p>  
<p>헌터들은 손을 탁탁 털면서 의아해했다.</p>  
<p>"뭐지?"</p>  
<p>"나 캐스팅한 마법 쓸 시간도 없이 끝났어."</p>  
<p>"왜 던전 자칼이 A급 던전에서 나와?"</p>  
<p>"그러니까."</p>  
<p>"협회 놈들 또 삽질한 거 아니야?"</p>  
<p>목소리가 높아졌다.</p>  
<p>원래 던전에서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.</p>  
<p>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잊어 버릴 만큼 던전 자칼의 등장은 충격적이었다.</p>  
<p>"흠..."</p>  
<p>자칼들의 사체를 들여다보던 손기훈이 뒷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'왜 C급 던전에서나 나오는 마수가 여기서?'</p>  
<p>손기훈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다들 비슷한 표정들이었다.</p>  
<p>그런데 단 한 사람.</p>  
<p>진우만이 심각한 눈빛으로 자칼의 사체를 응시하고 있었다.</p>  
<p>'평범한 자칼이 아니다.'</p>  
<p>진우의 눈이 가늘어졌다.</p>  
<p>자칼들의 목 주변에 털이 눌린 자국이 선명했다.</p>  
<p>어딘가에 묶여 있었다는 증거였다.</p>  
<p>'이 녀석들을 기르던 놈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...'</p>  
<p>지성을 가진 마수라.</p>  
<p>진우는 레드 게이트에서 만났던 백귀들을 떠올렸다.</p>  
<p>지성을 가진 마수들은 어떤 종족이든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.</p>  
<p>'어쩌면... 내 예감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.'</p>  
<p>좋은 징조는 아니었다.</p>  
<p>"뭘 그리 심각하게 봐요?"</p>  
<p>여힐러가 진우처럼 자칼을 뚫어져라 응시했다.</p>  
<p>"쉿!"</p>  
<p>진우가 검지를 들었다.</p>  
<p>저벅저벅.</p>  
<p>저벅저벅.</p>  
<p>동굴 안쪽에서 발맞춰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'진짜들이 온다.'</p>  
<p>진우가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헌터들도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다.</p>  
<p>"맙소사..."</p>  
<p>"저... 전투 준비!"</p>  
<p>손기훈이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.</p>  
<p>드디어 동굴의 어둠 저편에서 적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.</p>  
<p>헌터들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하이오크?"</p>  
<p>"아니, 왜 하이오크가?"</p>  
<p>잘 훈련된 것으로 보이는 하이오크 전사들이 열을 맞춰 서 있었다.</p>  
<p>숫자는 스물둘.</p>  
<p>그냥 하이오크도 아니고 하이오크 전사 스물두 마리라면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.</p>  
<p>"뭔가... 뭔가 잘못됐어."</p>  
<p>누군가 중얼거렸다.</p>  
<p>하급 마수 다음엔 느닷없이 상급 마수들 중에서도 강하기로 이름난 마수들이 나오다니.</p>  
<p>척! 척!</p>  
<p>하이오크들의 긴 창이 헌터들을 향했다.</p>  
<p>'헌터들이나 하이오크들이나 기세는 비슷하다.'</p>  
<p>진우는 구석으로 피했다.</p>  
<p>조용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다 자신이 나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였다.</p>  
<p>하지만 여힐러는 다르게 생각했나보다.</p>  
<p>"거기 얌전히 숨어 계세요! 다치지 않게."</p>  
<p>묘하게 열 받는다.</p>  
<p>진우는 눈을 감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다.</p>  
<p>곧 전투가 시작됐다.</p>  
<p>"크아아아아!"</p>  
<p>덤벼드는 하이오크들을 향해 손기훈이 광역 도발 스킬을 시전했다.</p>  
<p>하지만 하이오크들은 쉽게 도발에 걸리지 않았다.</p>  
<p>곧 하이오크들과 전투계열 헌터들이 뒤섞였다.</p>  
<p>쉬익!</p>  
<p>쉭!</p>  
<p>콰직!</p>  
<p>선혈이 튀어 오르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"으아악!"</p>  
<p>이내 마법계열 헌터들 쪽에서 날아온 마법들이 하이오크들에게 쇄도했다.</p>  
<p>퍼벙! 퍼버벙!</p>  
<p>빛의 화살에 맞은 하이오크들의 머리통이 날아갔다.</p>  
<p>하지만 다음 공격은 날아오지 않았다.</p>  
<p>마법의 효과는 좋았지만 캐스팅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.</p>  
<p>"으아아악!"</p>  
<p>백병전에서는 하이오크들이 우세했다.</p>  
<p>"힐! 힐!"</p>  
<p>"빠, 빨리!"</p>  
<p>부상자가 속출했고, 힐러들이 바빠졌다.</p>  
<p>"히... 힐러님!"</p>  
<p>여힐러도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.</p>  
<p>"갑니다! 갈게요!"</p>  
<p>한쪽 팔을 잃고 끙끙거리는 헌터 옆에 꿇어앉은 여힐러가 주문을 외웠다.</p>  
<p>우우우웅-</p>  
<p>그러자 눈 부신 빛과 함께 천천히 팔이 자라나기 시작했다.</p>  
<p>A급 힐러만이 가능한 재생의 빛이었다.</p>  
<p>그렇게 환자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눈앞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.</p>  
<p>힐러는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죽은 줄 알았던 하이오크 한 마리가 도끼를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.</p>  
<p>"아..."</p>  
<p>힐러의 얼굴색이 창백해졌다.</p>  
<p>안타깝게도 주변에는 아군이 없었다.</p>  
<p>오크가 도끼를 쳐들었을 때, 힐러는 도망가는 대신 환자를 몸으로 덮었다.</p>  
<p>"안 돼!"</p>  
<p>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.</p>  
<p>1초가 1분 같은 시간.</p>  
<p>힐러는 빼꼼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그러자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.</p>  
<p>"크... 크엑..."</p>  
<p>공중에 뜬 오크가 바들바들 떨어대고 있었다.</p>  
<p>"왜...?"</p>  
<p>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?</p>  
<p>힐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투둑.</p>  
<p>하이오크의 머리가 뽑혀 나가며 척추 일부가 딸려 올라왔다.</p>  
<p>무시무시한 힘이었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'...?'</p>  
<p>바닥에 떨어진 하이오크의 몸뚱이를 보며, 여힐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얼굴을 했다.</p>  
<p>'어...?'</p>  
<p>하이오크의 머리가 아직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.</p>  
<p>'...피 튀었네.'</p>  
<p>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들고 있던 하이오크의 머리통을 내던졌다.</p>  
<p>빡!</p>  
<p>난데없이 동료의 머리에 맞은 하이오크 하나가 바닥을 뒹굴었다.</p>  
<p>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진 게 회생은 어려워 보였다.</p>  
<p>'둘 해치웠고.'</p>  
<p>진우가 방향을 틀었다.</p>  
<p>지금은 은신 상태.</p>  
<p>하이오크들이나 헌터들은 자신의 존재를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.</p>  
<p>괜히 나섰다가 남의 레이드를 방해했다고 손가락질당할까 싶어 적당한 시기를 엿보고 있었는데, 뒤늦게 '은신' 스킬이 떠올랐다.</p>  
<p>이거라면 마음대로 날뛰어도 거치적거릴 게 없지 않은가?</p>  
<p>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'그럼 시작해 볼까?'</p>  
<p>그때.</p>  
<p>"으아아아-!"</p>  
<p>마침 하이오크 세 마리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공격대 리더, 손기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